

# 바이러스에 돼지도 죽을 맛…돼지열병, 강원 화천까지 동진

“교미철 돼지열병 멧돼지 폐사체 증가…3월 개체수 급증 예상”

“이번달 멧돼지 집중 살처분해야…철책으로 이동차단 필요”



이제 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5일 경기 파주시에서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추가 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못지 않게 아프리카돼지

열병(ASF)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도 화천에서까지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가진 멧돼지 폐사체 발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경기 연천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가 발견된 이후 서북부 지역인 철원·파주를 거쳐 이제는 강원 화천까지 ‘동진’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멧돼지 교미철이 11월부터 2월까지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집축’을 통해 전파되는 ASF 바이러스의 특성상 교미철을 맞아 활동반경이 커진 멧돼지들이 ASF를 인근 지역에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3월부터는 멧돼지들이 새끼를 낳으며 개체수가 확 늘면서

ASF 폐사체 발견 사례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번달이 ASF 방역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와 같이 허술한 광역울타리만 쳐놓아서는 ASF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 판정된 암생멧돼지 ASF는 총 173건이다. 지난 10월 2일 경기 연천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뒤 12월까지만해도 연천·철원·파주에서 ASF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었다. 그러나 1월 들어 강원 화천에서도 폐사체가 발견됐다.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멧돼지 교미철로 인한 집축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김현섭 한국양돈의사회 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예전에는 제한된 영역에서 이동했던 멧돼지들

이 번식을 위해서 돌아다니며 다른 지역 멧돼지들과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 ASF 전염도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미철을 거쳐 오는 3월부터는 멧돼지 분만이 시작되며 개체수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 대표이는 통화에서 “대개 어미 멧돼지 한 마리가 새끼 4~5마리를 낳는 것을 감안하면 폐사체 발견은 3월부터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멧돼지 사체를 최대한 빨리 수거하고 임신한 멧돼지가 분만에 이르지 못하도록 2월에 집중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3월이 되면 멧돼지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철원, 화천, 연천, 파주를 중심으로 폐사체도 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로서는 암생 멧돼지에서만

ASF가 발견되고 있지만 봄을 맞아 아생동물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ASF 확산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ASF 방역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아생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경기와 강원에 걸쳐 설치한 광역울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광역울타리를 쳐놓긴 했지만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아래쪽 땅을 파고 반대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파주와 화천, 철원, 연천은 ASF 오염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곳의 멧돼지 이동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으로 철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 지역의 멧돼지를 완전히 살처분해야만 ASF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1



포항 보경사의 장 담그는 날 경북 포항시 북구 보경사(대한불교조계종 제 11교구) 경내에서 철산 주지 스님의 경내에서 장을 담그기에 앞서 염도를 맞추고 있다.

## 삼척 해상케이블카 관광 랜드마크 우뚝

강원 삼척시의 관광 랜드마크 중 하나인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7일 탑승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9일 시에 따르면 100만번째 탑승객은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이기화씨로 관광차 삼척을 찾았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시는 이씨에게 축하 꽃다발과 함께 경품으로 쏠비치 삼척 리조트 2박3일 숙박권, 지역 관광지 프리패스 티켓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행운의 기회를 아쉽게 놓친 99만9999번째, 100만1번 째 탑승객에게는 장호비치 캠핑장 1

박2일 숙박권을 각각 제공했다.

삼척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탑승객 100만명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관광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9월26일 근덕면 용화리와 장호리 일원에 개장한 삼척 해상케이블카는 개장 후 주변 바다와 기암괴석 등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관광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충남도, ‘꽃 소비 활성화 운동’ 전개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졸업·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농가를 돋기 위해 ‘꽃소비 활성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화훼재배 농가는 보통 2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졸업식 및 입학식 등 행사에 맞춰 꽃 출하를 준비해 왔다.

화훼농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꽃을 재배·출하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꽃 출하가격이 지난해 절반 정도로 낮아진 데다 소비 역시 위축돼 농가의 경영비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꽃 선물 주고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해 화훼농가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꽃 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못하는 전북교육…“인력·교육 겉돌아”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교육 여전 미비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

전라북도교육청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의 체계마저 확립되지 않아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은 최근 열린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

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참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북교육청과 교육 연구정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전북 교육 여전이 미비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정보 연구원은 현재 초등 6학년 교육과

정식수업과 달리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앞으로의 교육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을 반영한 학생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수업 가능한 교사가 한 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교사들의 SW교육연수를 체계화·의무화해 자체적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민 셋이 뭉치면? 마을이 살아난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서울 강서구는 주민이 이끌어가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이웃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관심사를 나눔으로써 강서구 곳곳에 많은 마을들

이 꽂피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모분야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처음 접하는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모임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지원사업,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지원사업, 주민 관계망을 형성하는 골목만들기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총 1억6700만원으로, 사업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활동지원사업, 공간

정에 있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에 교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담당 교사는 지난해보다 2명이 늘어난 4명에 불과해 전북 모든 초등학교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나마 파견교사가 왔을 때도

홈페이지로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 전 접수기간 내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반드시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구는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을 심사하고 강서구마을공동체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결정한다.

뉴스1

## 강화해역 젯새우 조업 26년만에 전면 허용



인천 강화해역에서 26년 동안 금지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연안개량안강망어선의 젯새우 조

업이 전면 허용된다.

인천시는 강화군 연안개량안강망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연안 개량안강망어선도 강화해역에서 젯새우 조업이 가능하다.

단년생인 젯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가 강화해역에서 잡힐 만큼 강화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 원이다.

그러나 1994년 연안개량안강망은 그물코 지름이 25mm 이상의 그물을 사용 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좀처럼 그물로 잡아야 하는 젯새우 조업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이후 시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획량은 2017년 1375톤, 2018년 1155톤, 2019년 1040톤 등 범적 허용어획량 2421톤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젯새우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강화 어업인들의 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강망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긴 자루그물을 딱으로 고정해 조업하는 형태다. 동중국 해에서 조업하는 근해안강망과 서해 연안에서 조업하는 연안개량안강망이 대표적이다.

뉴스1

## 울산시, 교통문화지수 전년比 12계단 상승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통합 17위에서 12계단 상승한 것이다. 시는 시민 맞춤식 교육·홍보, 시민의식 향상,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시책 노력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자체에 대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지표 18개 세부 항목을 현장평가를 거쳐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된다.

시는 전체 79.29점(운전 형태 45.01점, 교통안전 16.98점, 보행 행태 17.30점)으로 전국 평균 77.46점을 웃돌았다.

△차량의 획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보행자의 획단보도 신호 준수율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률, 보행자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족 참여형, 교육형, 체험형, 지역형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차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의 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소비·판촉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비주제성 프로그램은 가급적 촉진하기로 했다.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외국인의 통역 지원을 위해 3월 12일까지 일반 및 통역 자원봉사자 40여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 봉사자의 경우 만65세 이하, 통역봉사자는 만 18세 이상 영어·일어·중국어가 가능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 봉사자의 경우 만65세 이하, 통역봉사자는 만 18세 이상 영어·일어·중국어가 가능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 봉사자의 경우 만65세 이하, 통역봉사자는 만 18세 이상 영어·일어·중국어가 가능해야 한다.

예정이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꽃 출하가격이 지난해 절반 정도로 낮아진 데다 소비 역시 위축돼 농가의 경영비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꽃 선물 주고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해 화훼농가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꽃 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